왜곡하고 싶은 역사 (VI) - 한 사람 세 얼굴

(마1:5~6, 삼하11:1~5)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로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여러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 속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거 성경에 쓰여 질 수 있는 말입니까?
왜 남의 아내한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또 성경은 왜 이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다윗은 그 많은 아내, 그 많은 후궁 다 놔두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남의 남자 이름이 나오고 그 남자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왜곡하고 싶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세 얼굴,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세 얼굴로 표현되고 한 사람의 인격이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세 가지 인격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한 사람 세 얼굴을 갖지 않으면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얼굴로 표현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하나님이 계시고, 아들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아버지하나님과 성령하나님은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만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다 영접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상태가 삼각형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비유적으로 한 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 개의 꼭짓점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강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인할 때에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얼굴 모습 중에 어느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서 놓쳐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 세 가지의 나의 얼굴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세 얼굴>, 다윗은 성군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성군! 거룩할 성자를 써서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

오늘 우리가 잠깐 봤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

들을 격려하고 전쟁에 앞장을 서야 될 그 때에 전쟁에 나가지를 않고 왕궁에 남아서 아마 오전부터 오후까지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오후에 해가 질 즈음 되어서 침상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한 뒤에, -이스라엘 가옥구조가 지붕 위가 생활공간입니다-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서늘한 바람을 맞으면서 거닐고 있었는데, 남의 집 마당에서 한 여인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과 그 집 사이는 분명히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는 집은 아니었을 거예요.
왕궁에 그렇게 개인 집이 가까이 있을 수 없지요?

해가 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여인의 모습이 보였을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도 있고 명암도 어두워질 그 즈음에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얘기해요.
아름다웠다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오후에 하얀 피부를 내어놓고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동침합니다. 본문에 보면 부정함을 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부정함을 씻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인의 월경의 끝난 뒤에 그것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목욕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밧세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동침하면서 둘 다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 여인의 월경이 끝난 그 당일 날 절대로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가임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현장을 보시고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될 수 없는 그 시점에 밧세바로 하여금 아기가 들어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밧세바가 자기와 동침한 뒤에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기는 이 목적 하나만 마음에 남게 됩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왕궁에 온 우리아에게 술상을 내려주고 안부를 묻고 그러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편히 쉬라고 특혜를 내려줍니다. 왜? 집에 가서 군인이 전쟁터에서 왔을 때 회한을 풀기 위하여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밧세바가 가진 아기가 내 애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기라고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뒤집어씌울 것도 없지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감쪽같

이 감추려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는데 이 우리아를 오해했어요, 다윗이.
충성과 우직한 마음에 가득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상관인 요압 사령관께서 야전에 계시고 동료들이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으며 전쟁을 치루고 있는데, 나 혼자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잘 수 없다. 해 가지고 문간에서 잠을 잡니다.
이 충성어린 정말 신하이지요. 충신! 충신!
아 그것 실패하니까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사령관에게 요압이라는 사령관에게 어떻게 편지를 쓰느냐?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의 부대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아를 전방에 세워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게 한 다음에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순간에 뒤에 있는 모든 군사를 퇴각시켜서 우리아로 하여금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하고 적들의 칼에 죽게 해라.'
그 편지를 우리아 당사자 손에 들려서 사령관에게 전해주라고 다윗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쁜 자식이라는 말 갖고도 직성이 안 풀릴 만큼 악한 생각을 갖는 이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별명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압장군이 전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실행합니다.

타워의 바로 밑에까지 군사를 끌고 가고 우리아의 부대를 제일 앞장세워서 갑니다.
왜 가면 안 됩니까? 성 타워에서는 위에서 돌만 집어던져도 다 죽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술상 바로 타워 밑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에요, 끌어내면 끌어내도.
그런데 끌고 가서 우리아를 전방에 세워서 전쟁하게 만든 다음에 모든 군대를 퇴각시키고 우리아가 적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이 완전범죄 뒤에 밧세바를 데려다 궁에다 들여앉혔습니다.

왜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 줄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다윗이 그리스도의 별명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따라 붙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뭘 믿어요?
다윗의 이, 악하고, 패륜아적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내 모습인 것을 모르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과 그 분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얼굴, 다윗이 밧세바를 강탈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이는 그 극악무도한 다윗의 모습이 내 하나의 얼굴 모습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 포로를 잡아 가지고 무릎을 꿇려서 이렇게 일, 이, 삼, 사, 오, 육, 쭉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뒤에 군인들이 쭉 섭니다. 그리고 몽둥이나 이 저 뭐야?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 포로들을 칩니다. 치면서 무릎으로 경주를 시키는 거예요.
일, 이, 삼, 사, 오, 돈을 내고 나중에는 그 경주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칼을 들고 등허리를 찌릅니다. 빨리 가라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포로들이 무릎으로 가고 있는 그 포로의 목을 칩니다.
목이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몇 걸음이라도 더 많이 가느냐를 시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이 떨어져 죽은 시체들을 앞에 놓고 돈을 내기 한 사람에게 주고받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현장 속에서 열네 살, 열다섯 살, 열세 살, 소년병들이에요.
소년병들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돈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 인간의 학명이에요.
생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을 치고 그 시체 앞에서 태연하게 돈내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승철이에요. 그게 바로 접니다. 아시겠어요?
교양과, 교육과, 문화적 관습과, 습관에 의해서, 나라의 법에 의해서, 묶여있을 뿐이지, 내 속에서 풀어놓으면 그 아프리카의 소년병보다도 더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는 죄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묶여있을 뿐입니다. 묶여있으면서도 죄는 힘을 발휘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뻗어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에 심방 갔어요. 방이 네 개짜리 집인데 온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나요.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요. 세 식구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얼굴이 죽은 상이예요.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얼굴이.
해에 그을린 게 아니라 속이 타 죽은 얼굴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듣자하니, 그 집에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십 년이 넘도록 노망에 걸리셔가지고 오물을 들고 벽과 온 집에 다 바르고 다녀요. 다 바르고 다녀요. 왜 그렇게 힘은 센지 밥을 드리려고 들어가면 손자아이들을 밀치고 나와서 똥, 오줌을 다 온 벽에다 다 쳐 발라요. 방에다 가두고 잠갔어요. 잠갔지만 그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있고 그 할머니 가두어놓았지만 바깥에는 그 할머니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먹구름이 온 집안에 가득히 잠기어있어요. 가득히…

다윗과 같은 범죄, 아프리카 소년병과 같은 범죄적 행위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나라법이 무섭고, 그 후한이 무섭고, 교양이 있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교양과, 교육과, 나라 법에 의해서 묶여있는 내 죄의 덩어리가 그러나 냄새를 피우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생기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짜증과, 미움과, 시기가 다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랍니다, 죄에서.
불평이 생깁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사라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
불평하십니까?
아프리카 소년병과 같은 죄악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요.
다윗과 같은 패륜아적인 죄악의 힘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리에 있는 창녀와 어린 나이에 수녀가 되어서 일평생을 수녀로 사는 그 수녀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범죄인이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 갖고 있는 인간학입니다. 이것을 못 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후배 전도사님이 유학을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왼손에다가 뭘 쥐었는지 이 손을 놓지를 않아요.
잘 때고, 밥 먹을 때고,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막 있는 대로 폈어요. 내가, 있는 대로. “뭐야? 이거 뭐야? 안 내놔? 안 내놔?” 봤더니 100마르크짜리 돈을 똘똘똘똘똘 말아 가지고 몇 장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렇게 똘똘 만 돈을 딱 쥐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물건을 사주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똘똘똘 말았던 돈을 쫙 펴 가지고 쫙 펴서 뉘여서 이렇게 한 번 쭉 접어서 이렇게 지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똘똘똘 말린 거 내도 돼요. 그런데 꼭 펴서 내더라고요. 펴서.
여러분, 똘똘똘 말려있는 100마르크는 얼마짜리일까요? 100마르크예요.
그거 지불할 때 쭉 펴서 내밀면 얼마일까요? 100마르크예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돈을 펴서 지불하는 것과 지불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내 속의 죄가 바깥으로 들어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대로 똘똘똘 말려서 펴지지 않은 상태로 내 죄의 가능성이 100마르크짜리 그대로 가치를 가지고 내 안에 잠적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갇혀있는 상태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신문과 뉴스를 볼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이 보도될 때마다 그게 '나'라고 보세요.
그게 '나'라고 보세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얼굴,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했더라.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시골 선지자를 불러다가 왕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한 행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고발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 있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굉장히 부자였다.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새끼 양, 암양 한 마리 사다가 온 가족이 그 양이 가족인 것처럼 아끼고, 예뻐하고, 위로를 받고 살았다.
그런데 부자 집에 아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자기 양이 아까워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는 양 중에 자기 걸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양, 암양 새끼,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 대접을 했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보좌에서 손을 치면서 있는 대로 스프링처럼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죽어야 마땅하리라." 소리를 팍 질러 버렸어요.
대노합니다. 대노합니다. 죽어야 마땅하리라.

그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문무백관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다윗이 보좌에서 굴러 떨어지다시피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

와께 범죄 하였나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

자! 두 번째 얼굴 뭡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는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20명 가까운 사람을 연쇄로 살인을 한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 살인범의 얼굴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뉘우침이 얼굴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까지 만들어 졌느냐 하면? 그 살인범을 찬양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어떤 글들이 올라 오냐?
‘너무너무 살인하는 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 잘생기면 얼굴 짱, 몸 예쁘면 몸 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이트에, ‘살인 짱이다. 살인 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이트에 막 올라왔어요.

천인이 공로할 일이 아무도 화를 내지 않은 채, 그 사이트에 참석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합니다.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당한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고 데모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범죄를 보고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려니, 날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를 향하여 노를 발하는 시대가 점점 더 지나가 버려요.

이게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왜 동성연애는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좋은 거지. 야,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좋지!” “남자 여자만 왜 같이 살아야 돼? 남자끼리 결혼하면 왜 안 돼?” “남자끼리 결혼하면 되겠니?” “왜 안 돼?” “아 안 되겠지.” “왜 안 돼?”
끝까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수업을 빠집니다.
“수업 빠지면 안 돼.” “왜 안 돼? 수업 빠지면 왜 안 돼? 엄마?”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이면 왜 안 돼? 왜 사람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다.” 말 한 마디 할 수 없는 한 대답할 길이 없어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논리로, 상식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다.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왜 범죄를 보고 대노하지 못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이에요. 희미해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식으로 몇 조 원을 들여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마약에 연결되고 뭐 이 담배니, 무슨 수업이니, 아니면 무기상에게 총을 받아서 총 쏘는 이런 걸로 다 번져 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
진화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내가 우연히 생겨났어. 우연히.
아메바에서부터 생겨나 가지고 우연히 생겨났어. 우연히 생겨났는데 내게 목적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데 수업을 왜 안 빠져?
수업 안 빠지면 뭐하게 안 빠져?
사람을 왜 안 죽여? 안 죽이면 뭐하게 안 죽여?
마약을 왜 안 해? 안 하면 뭐하게 안 해?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뒤늦게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 수억 달러를 들여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게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동시에 우리는 범죄를 보고도 범죄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편안한 까닭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평 한 마디하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깜짝 놀라야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분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불평이 웬 말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와야지요.
태연하게 불평에, 불평에, 원망에 꼬리를 잇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도 충만하게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찾지 않아요.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불평하고, 마음대로 시기하고, 마음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면 죄에 대해서 대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과 캐나다는 좀 나아요. 뭐가 나으냐?
동양사람 음식에서 나는 냄새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너그럽고 관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 같은데, 독일 같은 데는 아 정말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어제 저녁에 김치 한 쪼가리 먹어도 오늘 아침 강의실에서 다들 돌아봐요.
왜 돌아보는지 저는 알지요, 마늘냄새 때문에.
그래서 가정들이 절간 김치처럼 만들어 먹어요. 소금만 넣어서 고춧가루하고 그래서 김치를 만들어 먹어요.
그런데 거 웃기는 일이 있어요.
된장을 끓여 먹으려면 아주 뭐 필사적인 각오를 하고 끓여 먹어야 되요, 된장 한 번 끓여 먹으려면.

콩이 썩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된장냄새는 어떻게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치즈냄새,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먹는 치즈 한 번 맛 보셨어요?
된장은 식물성 단백질이 썩고 발효한 것이지만, 이 치즈는 동물성 단백질이 썩고 발효한 거예

요.
아무려면 냄새가 고약하면 된장냄새가 고약하겠어요? 치즈냄새가 고약하겠어요?
지네들 먹는 치즈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윗 이상의 죄악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도 내가 먹는 치즈고, 내가 먹는 된장이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는 무관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느 죄악에 대해서도 노를 발하고 분을 품는다는 것은 다 허망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대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압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재산이나, 이웃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동시에 다 범했어요.
압니다. 부자의 이야기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 줄 때 펄쩍 뛰며 대노합니다.
이 대노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세 번째 얼굴이 나타납니다.
보좌에서 내려와서 문무백관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 하였나이다."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범죄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기에 똘똘 말려진 범죄지만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보시는 그 곳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바로 그 내 죄악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다윗이 범한 죄악과 같은 죄악을 내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이 죄악뿐인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합니까?
성부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부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말씀 그대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않는 한 죄악에 대해서 노를 발하고, 분을 품고,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 속에 죄가 어떠한 모양인지를 밝히 볼 수 있는 현미경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면 살인이 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죄인지 몰라요.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게 나예요.
하나님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내 죄악 됨을 보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에 몸에서 나를 건져 내려나?" 곤고하다는 게 뭡니까?
가능성이 없는 나쁜 놈이다, 불가능하다, 편협하다, 더럽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해라."
이렇게 무릎 꿇는 사람에게 성령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삼위일체가 아니라 인간도 삼위일체가 될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지무지한 죄악 된 현실을 보고 그 죄악 됨을 향하여 나에 대해서 분을 발하고 화를 내며 나를 향하여 나쁜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불가능한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그 때에 성령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죄의 기운을 눌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화평과,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실패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불평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거 불평이 돈이 안 벌려졌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도 기쁨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거짓말이에요.
속지마세요.

내 죄를 보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 만사형통, 범사감사, 항상 기쁨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아주 쉬워요, 인생 살기는.
이미 있는 내속에 죄를 보면 다, 다 무찌르고, 넘어가고, 파괴하면서 내 장애를 인생의 장애를 깨고 나갈 수 있어요.

한 번 해보세요.
가정도, 다윗과 같은 범죄의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고 보는 남편과 아내가 모여 사는 가정에는 절대로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내 잘났다고 하는 부부들끼리 싸움이 붙고, 가정이 깨지는 것이지요.

정신병동은 일반병원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적게 필요할까요? 직원이.
정신병자 200명을 다스리는데 2명만 있으면 된대요.
왜 그러냐?
정신병자들은 단합을 할 줄 모른대요, 단합을.
왜 단합을 못하냐?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그런대요, 전부.
거기 정신병원에 가면 국방장관 이하로는 없대요.
국방장관 이하로는 없대요.
내가 국방장관 할 때에 키신저에게 내가 한 마디 하기를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통일원 장관 할 때에 “그래서 그게 문제였었구나? 거 국방장관 잘하지?” 이러면 옆방에 있던 사람이 “내가 너를 언제 국방장관 시켰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통일이 되지를 않아요. 통일이 되지를 않는다고.
전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교회도 어느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절대로 잘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교회는 시끄러운 법이 없어요.
죄인들이 있는 교회는, 그저 평화, 그저 감사, 왜? 뭐라고 한 마디 하면 “아~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하겠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인한테 꽉 붙잡힌 남편이 한 분 있어요. 부인이 말만하면 쩔쩔매고, 그저 그 부인의 말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사는 남편이에요.
아이는 어떻게 여섯이나 낳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나가서 인형을 하나 사왔대요.
애들이 여섯인데 여섯 개를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만 사와 가지고 여섯 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못 사왔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엄마 말이라면 그저 고분 고분하는 아이한테 주께."
그랬더니 여섯 아이가 동시에 합창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빠밖에 없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래야 집이 편해요.

그냥 죄인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그러면 밥상을 대해도 밥 한 그릇, 간장 하나를 놓아도 죄인인 줄 알면 맛있어요.
"나같이 길거리에 버려졌어야 하는 죄인이 이 밥을 먹게 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자식들 공부 못해요.
그러나 다윗처럼, 아프리카의 소년병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갖고 있는 나에게 공부 못하는 이 자식을 준 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나보다 잘났는데, 아무리 공부 못해도 나보다는 잘났는데, 아내를 봐도 나보다 잘났고, 남편을 봐도 나보다 잘났고, 아이들을 봐도 나보다 잘났고, 그저 교회 와서 집사님 보면 집사님이 잘났고, 장로님 보면 장로님이 잘났고, 그저 서리 집사님 보면 서리 집사님이 더 잘났고, 목사님은 더, 더 잘났고, 이런 교회에 전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서 예비 되는 축복의 세계로 날마다 끌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나도 삼위일체 죄악 된 모습을 보고 내 죄악에 화를 내고, 남의 죄악이 아니라 내 죄악에 화를 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참회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인격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횡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다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나한테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의 모습에, 나 스스로 화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